



〈KIA 양현중〉

〈한화 류현진〉

〈SK 카도쿠라〉

'3人 3色' 20승 투수 나오나

양현중·류현진·카도쿠라, 다승왕 3각 구도 형성
구위·제구력 등 완벽... 페이스 유지팬 '꿈의 기록'

프로야구 다승왕 경쟁이 치열한 3파전 구도로 펼쳐지면서 2007년 이후 첫 선발 20승 투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승왕 경쟁은 초반에는 SK 외국인 투수 카도쿠라 켄(37)이 독주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토종 왼손 예이스인 양현중(22·KIA)과 류현진(23·한화)이 치고 나오면서 한 치 양보 없는 3각 구도가 됐다. 2일 현재 양현중이 9승(1패)으로 단독 선두로 나섰고 카도쿠라와 류현진이 1승 차로 뒤를 쫓고 있다. 세 선수가 지금 같은 추세로 시즌 막판까지 승수를 쌓는다면 산술적으로 모두 20승 이상을 거둘 수 있다. 국내 프로야구의 20승 투수는 2007년 다니엘 리오스(22승)를 끝으로 맥이 끊어졌다. 그나마 2007년 기록은 리오스가 2008년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일본 무대에

서 퇴출당한 탓에 빛이 바래졌다. 토종 선수가 20승을 거둔 것은 1999년 정민태(당시 넥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올해 양현중과 류현진 가운데 20승 투수가 탄생하면 토종 선수로는 11년 만의 신세이다. 양현중, 류현진 모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12승 5패를 거둔 양현중은 2일 삼성과 대구경기에서 생애 첫 완봉승을 올렸다. 9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순철 MBC ESPN해설위원은 "류현진·김광현과 맞붙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구위였다"고 극찬했다. 지난 3월30일 시즌 첫 경기에서 패배를 안은 뒤 10경기에서 9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 이하)는 8차례나 기록했다. 특히 양현중은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

안게임 대표팀에 뽑혀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금메달을 따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후반기로 접어들면 상승세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최고 왼손 투수로 자리 잡고 있던 류현진은 올해 기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넥센경기와 1일 SK경기에서 연속으로 완봉승을 따냈다. 지난달 11일 LG와 청주경기에서는 17개의 삼진을 낚아 정규 이닝 최대 탈삼진 기록을 세웠고 이번 시즌 11경기를 모두 퀄리티스타트로 장식하는 괴력을 선보였다. 취약한 타선 탓에 2008년과 2009년 각각 14승과 13승에 그쳤지만 올해는 타선의 지원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류현진 역시 시즌 초반 1.66의 평균자책점(86개)에서도 1위를 달리면서 2006년 후 두 번째 투수 3관왕을 노린다. 시즌 개막 후 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잘 나갔던 카도쿠라는 이후 4경기에서 1승3패로 주춤하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연속으로 퀄리티스타트를 거두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학교체육 활성화 박차

광주시체육회가 초·중·고 학교체육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3일 "내주까지 초·중 101개교 109개팀(선수 1171명)에 총 1억 8000여만원의 육성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체육 꿈나무 육성 발굴 등 광주시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던 시체육회는 제39회 전국소년체전과 제91회 전

국체전에 참가할 광주대표팀과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정호 배구팀 등 초등 46개교 52개팀과 비아중 육상팀 등 중학 55개교 57개팀이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체육회는 또 고교팀에 대해서는 하계훈련 기간 중 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어린 선수들에 대

내주까지 초·중 109개팀에
보조금 1억8000만원 지원

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내일의 광주체육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과 팀별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9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8월 대전시에서, 제91회 전국체전은 10월 경남 진주 일원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남자배구 '세계 월드리그' 내일 개막

한국, 수원서 네덜란드와 첫 경기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신치용 감독) 신치용(55) 삼성화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배구가 5일 막을 올리는 2010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에 참여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실력을 겨룬다. 한국은 16개 나라가 4개조로 나눠 경기를 치르는 이번 대회에 세계랭킹 1위의 브라

질, 불가리아(6위)·네덜란드(28위)와 함께 A조에 속했다. 결승라운드는 대회 조적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각 조 1위팀과 초청 팀 1팀 등 6팀이 나간다. 세계랭킹 16위인 한국이 까다로운 상대를 제치고 결승라운드에 나가는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까지 11차례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은 1995년 6위가 최고 성적이다. 결승라운드에 오른 것도 1995년 한 차례뿐이며 2008년에는 1승을 올리는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3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순위는 14

위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삼성화재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인 최태웅·여오현·고희진을 필두로 신영수·한선수·김학민·강동진(이상 대한항공)·김요한·하현용(이상 LG손해보험)·문성민(할크뱅크) 등 13명이 대표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다른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대거 빠져 전력에 크게 약해졌다. 라이트 공격수 박철우(삼성화재)를 비롯해 이선규, 윤봉우, 하경민(현대캐피탈), 이경수(LIG손해보험) 등이 불참한다. 초반 대진은 좋은 편이다. 브라질에 비해 약한 네덜란드(5·6일), 불가리아(12·13일)와 수원, 인천에서 먼저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아사다 "멋진 공연 기대하세요"

아이스쇼 출연 위해 한국 방문

"오랜만에 팬들을 다시 만나네요. 즐거운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쇼 공연을 하러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5~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X- 메달리스트 온 아이스'에 출연하는 아사다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화장이 없는 얼굴에 모자를 꼭 눌러 쓴 채 입국장에 들어선 아사다는 "오랜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데,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사다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전주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아사다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근황을 밝히면서 "지금 당장 준비해 놓은 새 시즌 프로그램은 1개다. 앞으로 더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자소를 밝혔다. 아사다는 입국하자마자 당장 오후부터 다른 아이스쇼 출연자들과 함께 연습하며 손발을 맞출 계획이다. 아사다는 "즐거운 쇼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전했다. /연합뉴스

육상聯 '지도자 등록시스템' 도입

전국적으로 활약 중인 육상 지도자의 규모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육상지도자 등록을 받고 3일 발표했다. 연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육상 지도자를 대략 1500명으로 '추산'해왔다. 연맹 차원에서 육상 지도자를 인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수작업과 심판 관리시스템만으로 수치를 파악하다 보니 정확히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나달, 佛오피테니스 4강 안착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프랑스오피테니스 남자단식 4강에 안착했다. 나달은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11번째 남자단식 8강에서 니콜라스 알마그로(21위·스페인)를 3-0으로 물리쳤다. 최근 클레이코र्ट에서 20연승을 내달린 나달은 1세트 시작과 동시에 내리 3게임을 내줘 끌려갔으나 곧바로 다시 3게임을 따내 균형을 맞췄고 타이브레이크 끝에 1·2세트를 싸늘이하며 승기를 잡았다. 여자 휠체어 경기에 출전한 박주연은 단식 1회전에서 사뮈엘 빌라넬(네덜란드)에게 0-2(2-6 4-6)로 졌다. /연합뉴스

MEGABOX

1관	방자전 (18세)	최고급관
2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 / 하니 (18세)	
4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2세)	
6관	로빈 후드(15세)/페르시아의 왕자(12세)	
7관	내 남자의 손이(15세)/내 캠페같은 애인(15세)	
8관	유령작가 (15세)	
9관	방자전 (18세)	

• 호남주치던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전설의 대재앙이 선택한 단 하나의 영웅

www.megabox.co.kr
구.련면학국시거리 ☎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하니 (18세)
2관	내 남자의 손이(15세)/내 캠페같은 애인(15세)
3관	방자전 (18세)
4관	방자전 (18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3D(2세)/로빈 후드(15세)
6관	드래곤길들이기3D(2세)
7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
8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9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10관	유령작가 (15세)
1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달면연혁 방방-(1번 or 2번)→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2관	유령작가 (15세)
3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4관	내 캠페같은 애인(15세)
5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6관	하니 (18세) / 방자전 (18세)
7관	방자전 (18세)
8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2세)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청소년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방자전 (18세)
2관	나이팅에어 (18세)
3관	내 캠페같은 애인(15세)
4관	하니 (18세)
5관	유령작가(15세)
6관	아이언맨2 (12세)
7관	로빈 후드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무소 앞 효내타워주차장 -다.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www.primuscinema.com/www.jelkcinema.co.kr
종로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